



세계화

-아세르 인트레이터

작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 맞서 국제주의보다 개국가주의를 말했고, 금년에는 국제주의보다 애국주의 우선을 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는 세계화에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분명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세계 평화의 시대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천년 왕국 시대에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실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도 열방이 나뉜 채로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유대 회당들에서 토라 포션 하아지누가 읽혀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32:8 -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민족들 혹은 나라들은 먼저 족속의 구분, 물리적 경계, 언어에 따라 나뉩니다 (창 10장).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신명기의 이 구절에 근거하여 더 확장시킵니다.

사도행전 17:26 -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각 나라 고유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나라들 사이에 경계와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세계의 민족적 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과 병행한 개념의 유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정렬하라

저희는 메시아 시대의 세계적 평화에 대한 비전과 모든 인종적 배경을 가진 믿는 이들이 전세계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 혹은 단일 세계 문화라는 개념에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국가주의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각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계와 권리를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식민주의나 나치즘/파시즘, 공산주의나 급진주의 이슬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종말적인 세계 전쟁이 있을 것을 묘사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슥 14장, 겔 38~39장).

연합된 공격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반이스라엘 성향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연합시키는 그런 종류의 기구
2. 사람들을 부추겨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려는 전세계적 사상이나 종교

우리 시대에 유엔이 첫 번째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 같고, 급진주의 이슬람이 두 번째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급진주의 좌익과 급진주의 이슬람 사이의 기괴한 동반관계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조합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사업, 종교, 국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는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를 고안하셨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장악하려 할 때 대개는 파괴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오로지 부모나 청소년 사역자만의 몫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